 내가 접한 식물 혹은 동물 (단 한 종류만)에 비추어 본 나의 삶

미네르바 글쓰기 주제를 접하고, 먼저 저는, 저의 삶을 짧게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 동안의 나의 삶은 대략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나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줄 만한 식물 혹은 동물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잡초’였습니다.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이 ‘잡초’을 골랐을 것이라 추측이 들 만큼 제가 너무 흔한 소재를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잡초’ 외에 저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줄 동물 혹은 식물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상처받고 짓밟혀도 저항하지 않고 꿋꿋이 참고 견뎌온 ‘잡초’ 같은 인생.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고난 2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들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그 시련 속에서 제가 어떻게 잡초처럼 견디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시련을 통해 어떤 점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새로 입학한 학교에선 저처럼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들을 제일 끝 반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당수 저의 반 학급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불량 남학생들이 반에 많았는데, 소심하고 말 수가 적었던 당시의 저 역시 그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을 학우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일찍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학우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학대 속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 힘겹게 자랐을 학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내 삶이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이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인생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과거 그 어떤 순간으로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약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